

남북 겨레말의 이질화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필요성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북한의 겨레가 만날 때 겉으로는 소통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불통하고 오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탈북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각종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사회, 언론, 문화 제도상의 언어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 간판이 거리와 신문 방송에서 넘쳐나 이들을 이해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오래 지내온 경우에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워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배우고 검정고시를 거쳐 중학교나 대학 진학과 취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남북이 한국어를 공동으로 쓰지만, 남북언어의 이질화 상태를 무시할 수도 없어 우리는 남북언어의 이질화 양상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야 한다. 북한어 이해 교육이 우리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북한어 이해 노력이 깊어질수록 통일의 자신감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남북 교과서의 차이를 보면 교과목이나 내용과 교과 학술용어 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에 남북 청소년의 소통도 쉽지 않다.

[남/북] 교장과 교감/교장과 부교장. 조회와 종례/조회와 총화. 수업 빼먹다(땡땡이 치다)/뚜꺼먹다. 영재교육/수재교육. 볼펜/원주필(圓珠筆). 파스텔/그림분필. 멜로디언/입풍금. 스케치북/도화책. 탬버린/탐부린. 트라이앵글/삼각철(또는 세모종). 스카치테이프/붙임띠. 격조사/격토. 종결어미/맺음토. 동의어/뜻같은말. 동음이의어/소리같은말. 두제곰근/두제곰뿌리. 막대그래프/기동도표. 정사각형/바른사각형. 코사인/코시누스. 컴퓨터/콤퓨터. 알고리즘/알고리듬. 바이러스/비루스. 데이터/자료. 데이터베이스/자료기지. 포맷/서식화.

분명히 남북한은 동족이라서 ‘너와 나, 먹다, 가다, 밥, 공부, 아름답다...’ 등등 공통어의 자산이 더 많다고 보기에 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러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냉철한 머리로 학습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은 북한 자료에서 나온 표현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낱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예: 북한어 → 남한어)

누이는 **인차 동자질**을 하는 모양으로 자주 **정지문**을 열고 바깥으로 드나들었다. => 인차 → 이내. 동자질 → 부엌일. 정지문 → 부엌문.

언제 동자질한 뒤끝인지 **가시대** 안에는 가시지 않은 어지러운 음식찌꺼들이 붙은 사발, 접시 몇 개가 쌓여있다. => 가시대 → 개수대, 싱크대

가스곤로 우의 차주전자가 달랑달랑 소리를 내며 끓고 주전자 아구리에서는 김이 물물 피어 올랐다. => 가스곤로 → 가스레인지

중년남성들의 **갑작죽음**이 커다란 사회적화제거리로 되고 있다. => 갑작죽음 → 돌연사

겨울나이남새는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세다. => 겨울나이남새 → 월동채소

그들은 계단을 내려 **걸음길**로 들어섰다. => 걸음길 → 보도(步道), 인도(人道)

위 사례처럼 남북언어의 차이는 방언, 외래어, 순화어 사례에서 곳곳에 이질적 요소가 나타나는데 (1) 표현의 이질화와 (2) 표기의 이질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이질화의 주요 영역을 정리해 보면 체제 이념의 차이, 순화어 차이, 생활 표현의 차이, 방언의 차이가 대표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표 1 — 남북언어 ‘표현의 이질화’의 주요 영역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체제 이념 차이	한반도	조선반도	법원, 교도소	재판소, 교화소
	대통령, 국회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보안성, 보안서 소방대
	삼일절	삼일인민봉기의 날	스승의 날(5.15)	교육절(9.5)
	한글날	훈민정음창제일	제헌절(7.17)	헌법절(12.27)
순화어 차이	매스게임, 포스터	집단체조, 선전화	양궁, 퇴비	활쏘기, 풀거름
	아이스하키, 아웃, 해저터널, 다이어트	빙상호케이, 실격, 물밀굴, 살까기	비치발리볼, 프라이팬, 파마	모래터배구, 지짐판, 볶음머리
생활 표현 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위바위보	새해를 축하합니다, 돌가위보(돌가보, 가위주먹)	별일없다, 거저먹다, 넘자답다	일없다, 공먹다, 넘자싸다
	비밀번호	통과암호	흡연실	담배칸
방언 차이	누룽지, 눌은밥	가마치	거위	게사니
	상추	부루	마구	망탕
	해코지	남잡이	맷돌	망
	빨리, 이제	날래, 인차	하세요(명령) 하시지요(청유)	하라요 하자요

다음으로는 남북언어 표기에서 외래어, 발음, 사잇소리,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의 표기에서 극심하게 이질화를 보여 준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표기법에서 까다롭게 느껴 혼란스러운 비규범어일수록 북측에서는 규범어로 인정하는 것들이 많아 남북은 서로 다른 문법과 표기법(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의 통일 작업부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음 도표는 남북한 표기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 유형을 나누어 본 것이다.

표 2 — 남북언어 ‘표기의 이질화’의 주요 영역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외래어	초콜릿, 가스레인지	초콜레트, 가스곤로	비시지(BCG) 접종	비씨취접종
	고딕, 컵, 뷔페	고지크, 고뿌, 부페트	냅킨, 왈츠	내프킨, 왈쯔
	도넛, 매스컴	도나트, 매스콤	릴레이, 에너지	리레, 에네르기
	알코올, 튜브	알쿨, 쥬브	마이너스, 플래시	미누스, 플라쉬
	미얀마, 시리아, 스웨덴, 헝가리	만마, 수리아, 스웨리에, 마자르(또는 뎡그리아)	러시아, 덴마크, 이집트	로씨야, 단마르크, 예집트
모음	화폐, 겹연쩍다 -는구나, -는구먼	화폐, 게면쩍다 -는고나, -는구만	핑계, 괴팍스럽다 귀감(龜鑑)	핑계, 괴팍스럽다, 구감(龜鑑)
된소리	잠간, 곱배기	잠간, 곱배기	눈썹	눈섭
	빛갈, 색갈	빛갈, 색갈	멋쩍다, 족두리	멋척다, 족두리/쪽두리
	일꾼, 짐꾼, 지게꾼	일군, 짐군, 지게군	-ㄹ까, -ㄹ쏘냐	-ㄹ가, -ㄹ소냐
어미	띄어쓰기	띄여쓰기	태어나다, 되어	태여나다, 되여
파생어	무뚝뚝이	무뚝뚝히	겉쪽히	겉죽이
	곰곰이	곰곰히	엉거주춤히	엉거주춤이
	거북이	거부기	넋두리	넉두리
	얼루기	얼룩이	옹알이	옹아리
	설거지	설겅이	넌따랄다	넌다랄다
합성어	덧니, 사랑니	덧이, 사랑이	갓난아기	간난애기
	곤란, 꺾련	곤난, 권연	위쪽, 웃어른	웃쪽, 웃어른
	굴절	구절	검부나무	검불나무
사잇소리	범씨	벼씨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모음동화	냄비	남비	가자미, 지팡이	가재미, 지팽이
사이시옷	바닷가, 냇가, 뒷방, 꽃노래, 훈жат말	바다가, 내가, 뒤방, 코노래, 훈자말	차집, 진돗개, 호숫가	차집, 진도개, 호수가
두음법칙	노동, 노골적, 노인	로동, 로골적, 로인	규율, 미사여구, 여성, 양심	규률, 미사려구, 녀성, 량심
ㄸ불규칙	아까워	아까와, 아까워[복수인정]	줍다	쭏다
ㅎ불규칙	시퍼레지다	시퍼래지다	허예지다	허애지다
띄어쓰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나라

이상과 같은 남북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2004년부터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04년 어문학자들이 금강산에서 첫 접촉을 갖고 2005년 2월 협약서를 맺어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및 해외 한민족 공동체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해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자고 하였고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통일부 공직 유관단체가 되었다.

이 사업은 2005~2015년까지 서울, 평양, 개성, 금강산, 중국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양측 편찬위원들이 한 주일씩 숙박하며 공동작업을 하였다. 30여만 개 올림말(표제어)을 선정하였고 2015년까지 40%의 낱말 풀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북핵 사태로 북측이 교류사업에 응하지 않아 양측의 교류는 멈추었고 우리는 북측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추가 협의용 낱말의 집필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1질 10권 규모의 가제본을 남북협의를 자료로 완성하였다.

사람들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이질어, 가령 ‘대통령, 동무’ 등은 어떻게 선정해 뜻풀이해 올릴 것인지 궁금해한다. ‘대통령’을 남북 사전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의 〈표준국어대사전〉(2008)에서는 이념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에서는 “제국주의 독재자”로 부정적으로 풀이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2008), 우리말샘(2016)]

대통령 [대:통녕] (大統領) 「명사」 『법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

대통령(大統領) [명] 일련의 국가들에서 국가기관체계에서의 최고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국가와 정부를 동시에 대표하고 법적으로 광범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제국주의국가에서의 대통령은 독점재벌들의 정치적 이익과 부르조아 독재를 옹호하는 반인민 통치자이다.

따라서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뜻풀이의 공통요소를 종합하되 “제국주의국가에서는... 반인민적통치자이다.” 부분과 같은 이념적 뜻풀이만 삭제해 풀이하면 통합 기술에 어려움이 없다. ‘벗, 친구’를 뜻하는 ‘동무’도 북한에서는 “혁명 동지”의 뜻이 이념적으

로 개입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런 의미를 『북한어』 의미라고 별도로 처리하였고, <겨레말큰사전>도 이런 접근으로 처리할 것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2008)/우리말샘(2016)]

동무1 「명사」 「1」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2」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3」 『광업』 한 덕대 아래에서 광석을 파는 일꾼.

「4」 『북한어』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5」 『북한어』 일반적으로 남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

[조선말대사전(증보, 2017)]


동무 ①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② 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 || 고향~.

③ 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 | 이 책이 동무의것이 아닙니까?
글~. 길~. 말~. 밤~. 소꿉~. 송아지~. 어께~.

그동안 <겨레말큰사전>에 적용할 어문규범과 품사 체계는 일차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두음법칙, 사잇소리, 외래어 표기 등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이 많아 이들 문제를 더 만나 중점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자겨레말큰사전>을 웹사전과 앱사전으로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이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스마트폰 앱 <남녘말 북녘말>을 제작 보급하였고 <겨레말 TV>도 운영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 경과와 사업회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있다. 올해에는 남북 간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3,000여 개의 낱말을 선정해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펴내기도 하였다.

언어 통계 정보 누리집인 ‘민족어 통계 누리집’(ethnologue.com) 자료(2021)를 보면 세계 7,000여 개 언어 중 5,000만 명 이상 쓰는 언어가 25개이고, 한국어는 20위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문명어의 문자 역할을 하는 주요 문자는 알파벳, 한자, 아랍글자, 한글 등 20여 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한자 문명에 동화되지 않은 것도 한민족 고유의 한글 문명을 창출하고 한글문화로 문명을 퇴치해 나라를 지켜온 덕분이니 ‘한강의 기적’은 ‘기적의 한글’ 덕분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교육열 덕분에 문맹자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됐다. 더욱이 한국이 10대 무역대국이 되고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의 위상도 올라 한국어 사전의 용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현대언어학회가 조사한 미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수강 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어가 10위권에 들어섰기에 장차 나오게 될 〈전자겨레말큰사전〉은 해외 동포사회는 물론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사용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9),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사전의 올림말 표기차이, 맵씨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23),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태학사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리호경(2005), 조선 문화어 건설리론(조선어학전서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이관규(2021), 남북한 어문규범의 변천과 과제, 고려대출판문화원
 전수태(1992),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정순기 외(2005), 조선로동당 언어정책사(조선어학전서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최정후(2005), 주체의 언어리론(조선어학전서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최정후·김성근(2005), 조선어 규범 변천사(조선어학전서4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누리집: <https://www.gyeongmal.or.kr/>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전공(문학박사)을 하였다. 강릉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립국어원장, 한국어교육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다.